

건축모형

An Architectural Model

송인호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by Song In-Ho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성당의 뒤쪽 블럭에 '성당박물관' (Museo dell'Opera del Duomo)이 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있는 우피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있는 아카데미아, '도나텔로의 다비드'가 있는 바르젤로 등의 미술관에 비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덜 알려진 곳이지만, 건축가들이 찾아야할 중요한 미술관이다. 미술관에 들어서서 첫번째 방이 건축가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46)를 위한 전시실이다. 그곳에는 그가 만든 대성당의 둥근지붕(dome)과 정탑(lantern)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브루넬레스키를 르네상스의 첫번째 건축가라고 말한다. 그 이전 중세시대에 건축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석공의 우두머리나 건축적 재능도 더불어 갖춘 금속공예가나 조각가들과는 다르다. 그는 건축전문가로서 건축주와 계약을 맺고, 책임아래 설계와 시공을 진행함으로써 같은 시대의 다른 예술가들과는 구별되는,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정립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설계안과 새로운 시공방법을 제안하고, 건축주와 기술자들을 설득하여 실현하였다. 전시되어 있는 모형들은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피렌체 대성당, '꽃의 성모마리아'의 둥근지붕은 직경 38미터, 높이 114미터이다. 건축가에게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그 높은 곳에 그 큰 지붕을 얹는 시공방법이었다. 브루넬레스키는 흥예받침틀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교차방식으로 조금씩 내 쌓아, '스스로 지탱하면서 쌓아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창안한다. 아울러 구조체의 하중을 줄이고 작업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붕면을 여덟개의 뼈대(rib)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뼈대의 안쪽에 맞추어 내력벽을, 바깥쪽으로 마감벽을 쌓아 그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두 껍질의 사이의 계단과 통로를 지나 둥근 지붕 위로 오른다.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 토스카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웅장한(L.B.Alberti)' 둥근 지붕 꼭대기에서 장미빛 지붕들과 멀리 올리브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구름들을 바라본다.

성당박물관에 있는 '둥근지붕' 모형은, 고면지붕과 그 아래 드럼부

분,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앵스 부분이 남아있다. 중앙의 둥근 지붕은 높이1미터 직경90센티미터, 어른 키 남짓한 높이로 전시되어 있는데, 약 40분지 1정도일까? 팔각형의 벽체위에 여덟 개의 리브가, 둥근지붕의 구성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심하는 건축주들과 두려워하는 시공자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만든 모형이라고 한다.

한쪽에는 정탑의 모형이 있다. 높이 84센티미터 직경 70센티미터인데, 그 모형은 1436년 제작되었다. 둥근 지붕이 건설되고 있는 동안, 이제 확고한 믿음과 존경을 바탕으로 브루넬레스키는 정탑의 모형을 만들었다. 여덟 개의 큰 뼈대와 그 사이에 있는 열여섯 개의 작은 뼈대가 둥근 지붕위 정점에 모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 힘들이 아름다운 정탑으로 모아져서, 황금공과 십자가의 빛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브루넬레스키는 1446년에 죽었고, 이 정탑은 1471년에 완성되었으니, 이 모형은 죽은 건축가를 대신한 셈이다.

모형 한쪽에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아래 브루넬레스키의 데드마스크가 있다. 죽음을 맞이한 건축가의 표정과 건축가의 생각이 담겨있는 나무, 무덤과 같은 그 방이 감동적이었다.

‘성당박물관’의 동남쪽, 기벨리나 거리에 ‘까사 부오 나로띠’ (Casa Buonarroti)가 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집으로, 지금은 그의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다. 중정이 있는 집, 그리고 아름다운 부조 ‘계단에 앉아 있는 마돈나, 그것만으로도 낯선 길을 찾아 헤맨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만, 이 집에는 더욱 훌륭한 작품이 있다. ‘싼 로렌조 성당을 위한 정면모형’이다. 미켈란젤로는 1516년에 베니치가문의 주문으로, 싼로렌조 성당의 정면을 설계하게 된다. 여러 안을 거쳐서, 이 모형으로 안이 결정되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다. 높이 216센티미터, 폭 283센티미터, 두께 50센티미터의 12분지 1 모형조각이란 돌에 갖혀있는 영혼을 꺼내는 작

업이라고 했던가. 그 나무 모형에 미켈란젤로의 정신이 살아있는 듯 하였다. 크고 작고 대칭이 중첩되어 이론 기하학적 구성, 그 모형은 크기와 정교함으로 실제 건물에 못지않은 감동을 전하고 있었다.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건축가의 정신은 오백년을 너머 그 모형에 남아 있었다.

나는 건축모형이 건축가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작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표현수단이라고 믿는다. 건축은 입체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모형은 그 어느 표현수단보다도 건축가의 설계개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솔직하게 설계안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 주고, 설계안의 장점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은 가히 컴퓨터의 시대이어서, 모형의 위상이 위축되었다. 이제는 컴퓨터의 삼차원작업을 통하여, 실로 가상현실과도 같은 입체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현상설계에 제출된 도면들을 보면 건물의 안팎을 움직이면서 바라보는 투시도들로 현란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정교하고 환상적인 그림들에게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얼핏 다 비슷비슷한 그림들, 장면의 구도, 그 안에 서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금속성의 재료가 잘 어울리는 건물의 차가운 질감 그리고 컴퓨터가 준비한 장면들만을 순서에 따라 보다보면 컴퓨터의 미로에 갇힌 느낌이다. 편리하고 뛰어난 표현도구이지만, 그 안에 건축가의 영혼이 자리할 틈이 좁아보인다.

건축가들의 생각이 담긴 모형들이 많았으면 싶다. 속물적인 건축주를 현혹하기 위한 예쁘고 정교한 모형보다 건축적인 고민과 그것을 해결하는 개념을 입체적으로 잘 드러내는 모형들의 전시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가 되면, 건축가들의 모형으로 채워진 건축박물관이 있었으면 싶다. 그 모형들이, 이념과 자본의 방향에 따라 어이없이 헐리고마는 건물들보다 더 오래 남아서, 건축가의 고민과 열정을 후배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